

2017-2

신입생-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사례집



C/O/N/T/E/N/T/S

건강과학대 **1**

2 융합과학대

생명과학대 **3**

2017학년도 2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사례
- 건강과학대

건강과학대 참가자명단 -2017학년도 2학기

학과	멘토명	멘티명
보건복지행정학과	이동진	박재영, 김현지, 박은채
	류원욱	윤혜빈, 최형운
	정준호	정다훈, 유수진
보건의료산업학과	김효식	김현진, 전지영, 유지선
	김성빈	박재연, 김채은
	안현지	곽혜영, 박소희, 남재현
	장승일	박소윤, 김승희, 박성엽
스포츠의학과	이경민	조용준, 조희현
	김휘원	오유진, 신해섭, 채상록
	김민희	유호나, 홍다연
	함채원	김다운, 이정하
	김성현	한수인, 이재한, 김건호
	박정현	권은지, 김나영, 김도균
	박혜주	정주언, 이창민, 김도훈
	최현진	한승희, 현귀용
	정민우	전주환, 백대현

I. 건강과학대

원혜수형 - 보건복지행정학과

1. 멘토링 개요

- 1) 활동 미션: 멘티들의 진로찾기
 선후배 간의 친목도모
 독서활동
 학과 전공수업 도움

2) 멘토 및 멘티

- (1)멘토 : 류원욱
- (2)멘티 : 유수진, 윤혜빈, 최형운

3) 멘토링 활동

- (1)활동 횟수: 총 4회
-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10.25	12:30-13:30	면학관 215호	학습지원센터 멘토링 페스티벌 점심 참여
11.13	17:30-19:30	교내 담소골	남성희 교수님과 함께 멘토링 모임 및 독서 활동 계획
11.24	18:00-23:00	노원역 일대	원혜수형팀 영화 '꾼' 관람 후 친목도모
11.27	12:30-14:00	학생회관	원혜수형팀 점심 모임 및 독서 활동 후기 교환

2. 멘토링 소감

류원욱 멘토

이번 멘토링은 1학기 보다는 더 발전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스스로 생각하는 진로에 대해서 더욱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의 고민에 더 공감할 수 있었으며 더 나은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기존 계획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마치려니 아쉬운 감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 감사하게 생각한 점은 1학기 보다도 멘토링 활동을 독려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홍보가 잘 이루어진 점이다. 제한된 학교에서의 활동을 넘어서 밖에서 보다 폭 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의 지원은 활동을 도모하기에는 충분하였지만 학교의 위치는 제한이 있었다. 포천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서울 시내에서 열리며 사회적 지명도가 높거나 유명인이 참석하는 세미나 및 포럼과 같은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멘티후배들에게 무엇보다 고마운 점은 이렇게 활동을 공식적으로 끝낸다고 해서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전에 참여하지 못했던 행사는 겨울 방학 기간에 새로운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시간을 맞춰보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며, 앞으로도 멘토로 생각하여 함께 활동하기를 바라게 되었다.

유수진 멘티

선배님과 친목도모도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 하면서 대학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독특한 선배님의 진로는 나에게 위안이 되었다. 지금 전공은 기초공부 정도로 생각하고 다양한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최영운 멘티

멘토링의 가장 큰 장점은 선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팀의 멘토 선배는 일반적인 선배들과는 꽤 많이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남자로서 군대 생활을 3년을 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래서 다른 두 친구들과는 달리 병역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나에게 도움이 된 점도 있다. 또한 진로와 관련하여 우리의 고민을 정확하게 공감하기도 하고, 뻔히 듣는 조언보다는 경험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줘서 좋았다.

윤혜빈 멘티

선배님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얻고 싶어서 한 멘토링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좀 더 넓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보건,복지만이 아닌 더 넓은 분야로 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을 제시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멘토링이 끝나고도 우리 멘토링은 계속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방학을 활용하여 해 보지 못했던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다함께 CHA CHA CHA- 보건의료산업학과

1. 멘토링 개요

1) 활동 미션: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 및 기타 자격증 취득 요령 공유

볼링을 통한 친목도모

영화 감상과 같은 취미생활 공유

2) 멘토 및 멘티

(1)멘토 : 김효식

(2)멘티 : 김현진, 유지선, 전지영

3) 멘토링 활동

(1)활동 횟수: 총 6회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10.11	12:00-13:30	학교 카페	멘토링 조원이 정해진 이후 멘티 상담 및 향후 계획 진행
10.25	12:00-13:30	학교 카페 및 면학관 216호	학교 페스티벌 참여와 한국사, 토익, 진로 상담
11.01	16:30-21:30	송우리	친목도모를 위한 송우리 내 볼링, 저녁식사
11.15	12:30-13:30	학교 카페	진로 방향에 맞춘 컴활 1급 및 전공과목 조언 및 학습 요령, 질의응답(1차)
11.22	12:00-13:30	과학관 1층	진로 방향에 맞춘 컴활 1급 및 전공과목 조언 및 학습법 요령, 질의응답(2차)
11.29	18:30-20:00	미래관 4층	기말고사 전 멘토링 마무리를 위한 저녁식사 및 마지막 상담, 2학기 멘토링 진행 상황 검토 및 향후 계획 정리

2. 멘토링 소감

김현진 멘티

멘토링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정보도 없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었지만 선배와 같은 멘토링 팀 동기들과 첫 모임에서 같이 멘토링 활동 계획을 세우면서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공부 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활동해보니 선배에게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었고 여가활동을 하면서 학교활동으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지선 멘티

이번 멘토링에서 친하지 않았던 동기와 선배님들과 친목을 통하여 더 좋은 관계로 되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여가지원이라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여가 활동비를 통해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이런 여가지원 프로그램 같은 활동을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다.

김현진 멘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선배님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통학하는데만 신경 쓰느라 그 외의 다른 학교활동을 거의 접하지 못했던 저에게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가지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 학교 외에서 만남을 가져 특별한 활동도 해보고, 더불어 학교 내에서도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유용한 정보들은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약 3개월 간의 한 학기가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 보람찼습니다.

김효식 멘토

복학을 하고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하여 2번째 마무리를 진행하였다. 저번 프로그램에 이어 이번 프로그램 또한 순조롭게 진행을 마무리 하였고 멘티들 또한 잘 따라와 주어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고 후배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잘 못해준 점들이 항상 아쉬워 마음 한구석이 항상 아려왔지만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진로 고민이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도움을 준다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욱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포비전 - 스포츠의학과

1. 멘토링 개요

1) 활동 미션: 관심 분야 공유 및 진로탐색

스터디를 통한 학점 상승

친목도모와 함께 학교 생활에 흥미 유발

진로, 성적과 관련한 고민상담

2) 멘토 및 멘티

(1)멘토 : 박혜주

(2)멘티 : 이창민, 정주언, 김도훈

3) 멘토링 활동

(1)활동 횟수: 총 6회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10.25	16:30-17:30	미래관 휴게실	첫 만남으로 자기소개를 하며 친목을 가짐.
11.01	16:30-18:00	카페	학교생활과 학점관리, 관심 분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 어떻게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부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하며 멘토로서 멘티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줌.
11.09	16:00-18:00	도서관	지금까지 했던 기존의 멘토 멘티와는 다르게(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멘티들이 스터디 보다는 색다른 것을 원하였음) 독서 토론을 하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서 책 선정을 위해 도서관에 모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선정함.

건강과학대 우수 멘토링 팀

11.15	16:00-17:00	도서관 및 카페	<p>각자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던 주제를 생각해 서 모임. 한 명씩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 고, 다른 친구의 생각은 다른지를 들으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짐. 단순하게 그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자신의 현실에 맞닿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서도 나누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p>
11.28	19:00-21:00	현암기념관	<p>경기나 공연을 보러 가기에 도무지 시간이 맞지 않아서 힘 들었는데 딱 동아리 꿈꾼의 연극인 '쉬어 매드니스'를 접 하게 되었음. 다 같이 정말 재미있게 보았고 모두들 연기 하셨던 분들이 같은 대학생이라는 것에 대해 더욱 놀라며 감탄하며 보았고 다들 웃으며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 영화관이나 경기를 보러 가려면 최소 왕복 3시간은 걸리 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예술제를 더욱 시간도 절약 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으로 모두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음.</p>
11.29	19:00-20:30	학생회관	<p>치킨과 간식과 함께 모여서 짧았지만 뜻 깊었던 멘토링 활 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짐. 맛있게 먹은 후에는 기말고 사를 위한 시험 과목 공부를 도와줌. 멘토가 수강했던 과 목들을 집중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주고 해부생리 학과 같은 암기가 필요한 것들은 서로 질문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짐. 처음 만났을 때는 매우 어색하였지만 확실히 일주일에 한 번이상 모여 멘토링을 하니 서로 반갑게 인사 도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험 기간에도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라고 하였고 방학 때 한번 포천이 아닌 서울로 모여서 모두 좋아하는 경기 관람을 하기로 약속하며 공식적인 마지막 멘토링을 마쳤음.</p>

2. 멘토링 소감

박혜주 멘토

3학년이 되니 1학년 후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고 분명 궁금한 것이 많을 후배들이기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다. 나도 1학년 때를 생각하면 점점 취업에 가까워지는 3학년 선배들에게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만날 기회도 적었고 아쉬움이 컸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더욱 도움을 주고 싶었다. 다같이 처음 만난 날, 어색하지만 빨리 분위기를 편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학교생활, 하고 싶은 것, 궁금한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서로의 관심분야를 알고 나니 더욱 편해졌고, 반대로 나의 진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첫 만남에 할 지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확실히 두 번째, 세 번째, 만날수록 더욱더 정이 깊어져 갔다. 다른 멘토-멘티들과 다르게 색다른 것을 해보자는 이야기에, 한 친구가 책을 좋아하시냐고 물었다. 생각해보니 다들 한 번씩은 도서관에서 마주 쳤었고 이때 독서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음 모임에 바로 도서관에서 모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선정하였고 2주 동안 열심히 읽으며 독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한 문장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본적이 매우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새로웠다. 각자 선정해온 주제에 따라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보통처럼 만나서 모르는 것 질문하고 알려주는 스터디와는 달리 시간도 더욱 빠르게 가고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농구경기와 배구경기를 보러 가려 했지만 아쉽게도 각자 집이 멀어서 갈 수 없었다. 하지만 다들 공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꿈꾼의 '쉬어 매드니스' 관람도 하고 마지막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멘토링을 할 때에는 너무나 아쉬웠다. 짧은 시간이었고 내년에는 4학년으로 자주 학교를 오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것 있으면 꼭 연락하기로 약속하며 3학년 마지막, 매우 뜻 깊었던 멘토-멘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3. 활동사진



2017학년도 2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사례
- 융합과학대

융합과학대 참가자명단 -2017학년도 2학기

학과	멘토명	멘티명
데이터경영학과	이장혁	양수정
	손민지	안규종
	김태희	엄태영, 정재홍
	이종민	이승민, 김나은
	임아름	장윤수, 홍도원
	노창한	노진용
	이재준	정은녕
	임지수	원종훈
	김준현	김경빈
	김효빈	김해찬, 민경건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강선주	김단비, 박수현
	권서연	성정민, 제한송
	전다혜	최선하, 서수경
	최가현	전지수, 이상호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태문	조주형, 안재경
	권승근	김수민, 장미나, 김영균
	이승환	서현지, 서원호, 강유정
	이지은	김민정, 박찬이
	지일웅	우정용, 김누리
	최수지	김유빈, 도현주

II. 융합과학대

꿀케미★ -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1. 멘토링 개요

1) 활동 미션

- (1) 영화감상: 취미공유와 여가 문화생활, 친목다지기 등을 위해 영화감상
- (2) 성격검사, 교수님과의 상담활동 및 학업활동

2)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전다혜
- (2) 멘티 : 서수경, 최선하

3) 멘토링 활동

- (1) 활동 횟수: 총 5회
- (2) 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10.28	09:50-15:30	메가박스	영화관람 및 점심식사
10.29	10:30-16:30	포천 금계 초등학교	초등학교 벽화 봉사
11.12	15:00-17:20	롯데시네마 노원점	영화관람 및 저녁식사
11.19	09:30-14:00	메가박스	영화관람 및 점심식사
11.23	16:30-20:30	면학관 216호	K-WAIS(성인용 지능검사) 실시

2. 멘토링 소감

전다혜 멘토

처음 멘토링을 계획했을 때부터 주로 여가활동과 학업관련 활동을 하기로 구상했었는데 실제로도 두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잘 섞였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두 가지 영역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지거나 하나라도 결핍되었다면 재미를 잃거나 진지함을 잃어 분명 둘 중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컸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활동이 재미있던 기억들로 가득했을 정도로 누구보다 즐거움이 많았던 시간이었고 그 속에 흥미나 오락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후배, 멘토-멘티 혹은 순수하게 친한 언니-동생 사이로도 지냈기에 학업이나 진로 관련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조언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기도 했다.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지금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의 아쉬움이 있을 뿐 ‘아 그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걸’의 아쉬움이 결코 아니었다.

돌이켜 보면 무엇보다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학과의 특성이 잘 묻어났던 멘토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 평면이나 페인팅 같은 일차원적인 미술활동이 주었던 멘티들에게 영화감상은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미술과 접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통로가 되었을 것이다. 큰 화면과 살아있는 미술을 보면서 공간 구성력이 커지고 색감과 원근법, 색의 사용, 상징 등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입체 공간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 속 세상과 인물들을 만나보면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적 표상들 표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재 심리 상태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유전이나 가정 환경, 성장 배경, 생활 환경, 트라우마 경험 등 사람의 성격이나 문제 성향/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도 가상이긴 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영화를 통해 적용해 볼 수 있었다. 이는 미술치료 · 상담심리를 전공으로 하여 배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수 요소이면서도 큰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본질적으로 영화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혹은 애써 외면하려고만 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담겨있는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자 이야기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치료하고자 한다면 완전히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느꼈고 그 결과 지금 그에게 무엇이 생겼는지 조금이나마 공감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배경지식이 있는 것이 수월한데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큰 몫을 하는 것 같다. 완전히 그 현장에 뛰어 들 수는 없지만 화면이라는 창을 경계로 조금은 거리를 주고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지해주는 것 이것 또한 치료사가 지녀야 할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미에서 영화 감상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벽화봉사나 지능검사도 마찬가지이다. 벽이라는 크고 무궁무진한 화면으로 실습실과는 다른 환경에 평상시에는 잘 써보지 못한 매체들을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 계단벽화였기 때문에 주로 앉은 자세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주었던 시간이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선과 세상에서 함께 있고 보는 것, 그것은 꼭 치료사가 아니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함께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거만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사람들, 내담자를 대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다. 여러모로 치료사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지능검사는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히 전문적으로 전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3학년인 멘토와 그 외 몇 명이 검사자가 되어 진행한 것이라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검사이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멘토 멘티 모두 전공을 더 실질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멘토 포함 3학년들에게는 직접 실습해 보고 수정하고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멘티들에게는 자신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을 미리 경험해 보고 전공 선택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체험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외 꼭 반드시 멘토링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서로 조금씩 조금씩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간식도 나누어먹고 취미도 공유하고 일상 이야기도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확실히 친목을 다지고 교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멘토링이기는 했지만 그 속에 단단하고 견고한 경험들과 생각들, 관계가 모여진 것들이 앞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큰 영양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순간들이었다. 멘토 1명에 멘티 2명으로 총 3명 모두 여자라 다양한 구성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구성원이 모두 여자였기에 더 편하고 솔직하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선후배와 멘토 멘티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편하게 여자들끼리의 끈끈한 사이가 되어 진지하고 중요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서로에게 든 생각이나 해주고 싶은 말들도 해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원래 짧다고 느껴졌던 한 학기의 시간이 정말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멘토 멘티 모두 활동에 적극적이고 열성을 보여서 쉽게 의견이 나오고 또 대체로 원만하게 합의점이 모여져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결과들이 나왔던 활동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즐거움과 유익함 모두 놓치지 않았던 알찬 활동들이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들-여가와 친목-도 거의 완수하였고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그 외의 긍정적으로 부수적인 것들도 얻을 수 있어서 예상보다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조금 너무 체계적이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약간 좀 더 여유롭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3. 활동사진



멘토님만 싸움잘하조 - 의료홍보미디어학과

1. 멘토링 개요

- 1) 활동 미션: 영화 감상 및 친목 도모
- 2) 멘토 및 멘티
 - (1)멘토 : 권승근
 - (2)멘티 : 김수민, 김영균, 장미나
- 3) 멘토링 활동
 - (1)활동 횟수: 총 6회
 -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10.09	22:00-01:30	휴게실	구체적인 멘토링 활동 계획을 세우고 활동 방향성을 모여서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25	12:30-13:20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실습실	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점심만찬에 참석하여 멘티의 칭찬을 메모장에 붙여 적고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11.13	20:00-00:45	의정부 CGV	함께 '토르'라는 영화를 보며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인위적으로 다가가기보다 어떤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1.21	10:00-12:30	카페엔젤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숙사 생활이 게을러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함께 변화해보고자 오전에 만났습니다. 하루를 부지런하게 시작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11.23	20:30-23:30	휴게실	야식을 먹으며 전반적인 학교생활이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12.02	15:30-00:30	롯데월드	시험기간이 다가올수록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놀이공원에 가서 실컷 놀았습니다.

2. 멘토링 소감

권승근 멘토

10월 9일 모든 인원이 처음 휴게실에서 만난 후 한 학기 동안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시작 시기도 많이 늦어진 감이 있었고, 멘토와 멘티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활동을 하고 서로 배우며 공유하는 것이 멘토링 활동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인지 멘토인 나의 부담도 덜 수 있었고 멘티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처음 만났을 때는 다소 어색했지만 갈수록 분위기도 편해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시작할 때부터 모두 한 소리로 입을 모은 것이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주 만나고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서로 챙겨주고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나 역시 1학년인 멘티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었고 진정성 있게 다가갔던 것 같다. 멘티들이 점점 마음을 열고 자연스러워 지면서 조금 더 욕심을 냈다. 학교에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었고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 어쩌면 멘티가 처음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겠다고 지원할 때 기대한 바가 진정한 선후배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인연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1학기 멘토링과 마찬가지로 학습지원센터에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기가 마무리되면 동시에 종료되지만,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지속하고 계속해서 교류하며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실제로 1학기 멘티와도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런 점이 장점인 것 같다. 진정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멘토와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멘티가 만나면 실패할 수가 없다.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았더라도 자주 만나고 학교생활을 함께 하며 어려운 순간은 이겨내고 즐거운 순간은 공유하며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학습법이나 생활 팁, 시험 팁 등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직전에 학교 생활을 경험했고 어쩌면 같은 고민을 먼저 했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다.

과연 멘토링의 취지와 학생들이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수의 멘토, 멘티들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꼭 지속됐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다.

권승근 멘토에게..

- 리더십 있으시고 굉장히 계획성 있게 이끌어 주셨다. 걸모습과 달리 유머감과 자상함이 겸비되어있으셨다. 높은 선배임에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주시고 편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선배랑 이렇게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갈 기회가 흔치 않은데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초반에 서먹서먹했던 멘티들의 어색함 개선을 위해 말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셨다. 또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멘티들에게 먼저 무언가를 하자는 추진력을 보여주셨고, 멘티들의 고민과 말 등을 진지하게 자신의 일처럼 들어주셨다.
- 멘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 하셨다. 덕분에 점점 만날수록 이전보다 좀더 친해졌던 것 같다.

김수민 멘티에게..

- 첫 만남에서 동공지진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갈수록 본래의 성격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솔직하고 유머러스하다. 웃는 상이어서 보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다.
- 기존의 내가 알고 있던 성격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었고, 멘토멘티조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었다. 처음에는 그나마 친했던 나에게 의지를 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후에는 먼저 무언가를 하자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좋았다.
- 멘토 멘티로 만나기 전에는 많이 안 친해서 어색했었는데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는 면이 많다고 느꼈다. 또, 어색해하지 않도록 편하게 대해 주었다.

김영균 멘티에게..

- 바라만 봐도 듣적이다. 지난 과거에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본인의 성격에서 모난 점을 인지하고 스스로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보기 좋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며 수용하려는 자세가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친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활동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잘 드러내서 숨겨진 모습을 본 거 같았다. 무엇보다 같이 바이킹을 타면서 ‘아, 이 친구가 이렇게 감정표현을 잘했구나.’라고 새삼 느꼈다. 동기지만 말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 좋았다.
- 원래의 성격을 자신을 잘 안 드러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멘토멘티 활동을 하면서 평소보다 말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어 좋았다.

장미나 멘티에게..

-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의견을 잘 종합하려는 타협적인 모습이 보기 좋다. 친화력이 좋아서 어디서나 적응을 잘 할 것 같고 어느 조직에서나 잘 어울려 조화로울 것 같다.
-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 어색한 분위기를 많이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고맙고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밝은 분위기를 내주었다. 미나랑 2학기가 되어서 마주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멘토링 활동을 통해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 장난치는 것을 잘 받아주고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했다. 덕분에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는 크게 어색하지 않았다.

효빈이와 학교 대모험 - 데이터경영학과

1. 멘토링 개요

- 1) 활동 미션: 학과 전공 공부
- 2) 멘토 및 멘티
 - (1)멘토 : 김효빈
 - (2)멘티 : 김해찬, 민경건
- 3) 멘토링 활동
 - (1)활동 횟수: 총 4회
 -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10.25	15:30-17:30	미래관 5층	상호 자기소개, 멘티의 부족한 점 파악
11.07	16:30-19:00	과학관 카페	마케팅 과제 PPT 및 대본 첨삭
11.21	16:30-18:30	과학관 카페	시험기간 대비 체계적인 플랜 세우기
11.29	16:30-18:30	미래관 5층	마케팅 최종 과제 - 스타트업에 관한 PPT 지도와 제안 (이전 지도에 대한 변화 체크)
수시			멘토링 시간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언 (2회)

2. 멘토링 소감

김효빈 멘토

[교학상장(敎學相長) 멘토링]

10월 말, '효빈이와 학교 대모험'이라는 다소 유치한 팀명으로 멘토링 활동을 시작했다. 팀 이름처럼 초보 멘토인 내가 신입생 친구들을 이끌고 멘토링이라는 모험을 잘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시작했다. 멘토 지원을 할 때, 17학년 멘티 친구들에게 '항상 옆에서 도와줄 수는 없더라도 냉정한 세계의 초입만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적었다. 멘토링을 하며 멘티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멘토링을 하는 가장 큰 목표였다. 4회 총 8.5시간의 모험 후 우리는 어느새 마지막 문을 지나게 되었고 모험을 마쳤다. 학교에 새로 입학하면서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멘티들은 한 학기동안 잘 따라주었으며 참 적극적이었다. 알려준 것들을 체화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거듭했으며 나 또한 그러한 멘티들을 보며 배운 게 참 많았다. 우리 팀의 활동을 사자성어로 요약하자면, '교학상장'이다. 멘토는 멘티에게, 멘토는 성장하는 멘티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는 '상호 멘토링'이었다고 생각한다.

[모험의 여정] (활동내용)

우리 조는 'PPT제작', '학습법', '아이디어 검토와 발표준비' 이 세 가지 위주로 멘토링을 했다.

1. PPT 제작

대학을 다니는 동안 발표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PPT는 발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마땅히 도와 줄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멘티들이 멘토링을 신청한 가장 큰 계기 같다. 사실 나도 입학할 때까지는 PPT를 만들어오라 하면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후 아무렇게나 나열하고, 기본 테마를 적용한 누가 봐도 지루한 PPT를 만들곤 했다. 그래도 잘 만든 템플릿들을 보고 흉내 내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어느새 디자인에 대한 감각도 생겼다. 또,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주의깊게 보며 배울 점들을 메모도 했다. 노력들은 모여 간단하면서도 한 눈에 들어오는 PPT를 만들 수 있었고 멘티들이 나와 같은 과정을 거쳐 PPT를 자신 있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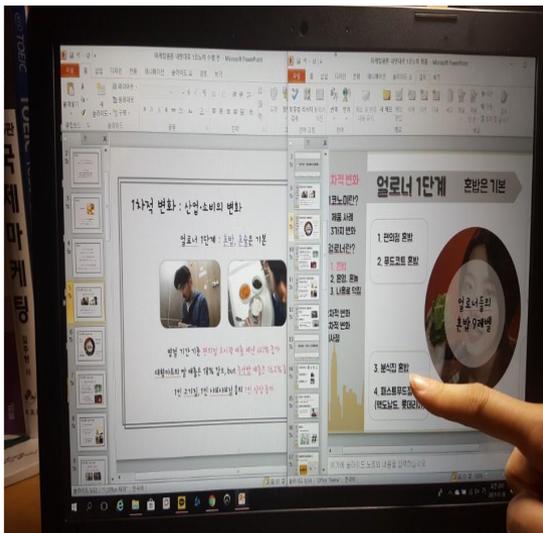
첫 트렌드 발표(마케팅원론 첫 팀 과제)를 앞둔 멘티의 PPT를 봤을 때의 느낌은 '허전하다'였다. 내용도 적었고 전체적으로 너무 뻥한 느낌을 받았다. 이를 어떻게 바꿔볼까 고민하다가 멘티와 PPT 디자인과 내용 구성을 아예 변경하기로 했다. 발표 하루 전에 급히 내린 결정이라 걱정이 컸지만 차근차근 알려주려 했다. 멘토링 활동과 PPT 수정 제안은 이렇다.

진행 순서

1. ‘트렌드 코리아 2017’을 읽은 후 멘티가 발표하게 된 트렌드에 대한 이해
2. 멘티가 만들어 온 PPT를 (첨삭 전) 본 후 슬라이드 별 문제점 지적 + 부족한 부분 보충
3. 멘티가 작성한 대본에서 문맥 상 어색한 부분과 매끄러운 설명을 위한 단락 재배치
4. PPT와 발표 대본을 비교한 후 약간의 다듬는 작업
5. 청중들에게 들어올 질문을 예상한 후 답변 생각해보기

PPT 수정 제안

1. 목차는 맨 앞에 둘 것
2. 시각자료 활용
3. 내용의 개연성을 따져 슬라이드를 배치할 것
4.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글자 나열 자제
5. 현재 발표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순서 작성
6. 슬라이드 앞장에 제목을 크게 작성하며 발표자 정보를 적을 것
7. 사진만 첨부하지 말고 내용을 동반할 것



멘티는 내가 짚어준 부분을 염두에 두고 멘토링 시간 외에도 조언을 구해가며 밤새 PPT를 만들었다.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간단명료하고 이목을 끌 수 있는 PPT가 완성되었다. 멘티는 내가 알려준 지식들을 금세 본인의 지식으로 만들었고 다른 전공 발표 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 같은 학번 동기들이 ‘네 멘티 PPT 진짜 잘 만든다고 하더라’라고 칭찬을 했을 때 정말 뿌듯했다. 매 멘토링 시간마다 멘티는 내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나는 멘티에게 잘 하고 있으니 힘내자는 말을 잊지 않았다. 서로를 격려해주며 열심히 하려는 이 부분이 우리 팀이 성공적이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2. 학습법

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은 항상 중요하다. 그걸 경험해온 어른들은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시간대 별로 나누어 방학 생활계획표 등을 작성해볼 것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면 한번쯤은 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실 나도 대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시험기간 1주 전에 밤 새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계획 없이 시험을 치렀다. 들인 노력에 비해 학점이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더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방법을 찾아 생각난 것이 시간대별로 공부 계획을 세워 충분한 시간에서 여유롭게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시험부터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았다. 처음으로 들인 습관이라 지키는 것이 참 힘들었고 계획을 몇 번 미룬 적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실천하려는 노력을 거듭하다 보니 시험에 임박해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2학년 1학기에 3등이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멘티들도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굳이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랐기에 내가 사용했던 방법을 추천했다. 다만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과 하루일과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패턴에 어긋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흔쾌히 계획표를 작성하겠다고 협조해줘서 고맙다. 계획표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계획표 작성 요령

- A4용지 한 장을 준비한다. (이면지 X)
- 용지의 한 쪽 면에는 과목 별 시험 스케줄과 시험범위를 적는다.
- 계획을 시작하는 날부터 시험 종료일까지 남은 일(日) 수를 파악한다.
- 용지의 다른 면에 수만큼 칸을 나눈다.
- 기상 시간부터 식사, 휴식, 여가 시간들을 충분히 고려해 공부할 양을 나눈다.
- 계획표를 작성할 때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준수한다.
 1. 절대로 무리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 것 (수면시간 충분히 고려)
 2. 정해질 만큼만 할 것 (무리하면 일찍 지치기 마련)
 3. 공부한 것을 문서파일로 정리할 것

성적 향상의 비결에는 사실 대단한 것은 없다. 다만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울 뿐이다. 멘티가 이번 멘토링 이후로 계획을 세우고 또 지키려는 노력을 하며 추후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든든히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마음이다.

3. 아이디어 검토와 발표준비

멘티들이 수강하는 데이터경영학과 전공필수 강의 ‘마케팅원론’의 마지막 팀 과제는 바로 스타트업 아이디어 발표이다. 창업 아이디어나 어느 특정 기업의 입장에서 제안을 하는 발표인데 수익성, 시장분석, 마케팅 전략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참 까다로운 발표인데다가 기말고사 일정과 겹쳐 참 촉박했다. 작년에 내가 발표할 당시에는 발표시간이 20분으로 넉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우리 팀의 취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번엔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청중들을 이해시키고 사업의 매력을 보여줘야 하는 발표로 바뀌었고 멘티들의 부담감은 더 커졌다. 그래도 2학년 1학기 전공 발표 때 나도 창업 아이디어 제안서를 5분 내에 발표하는 과제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멘티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원래 멘티의 팀은 VR 게임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중 모바일 게임으로의 진출을 생각했다. 하지만 팀의 대략적인 계획을 들어보니 모바일 게임은 사양, 흥행과 같은 변수가 너무 많았다. 아이디어 수정 회의를 거듭한 결과 VR 온라인 게임으로 방향을 살짝 틀었다.

스타트업 발표 구성 제안

*참고 사항 : 멘티의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들끼리 플레이가 가능한 VR 온라인 게임 출시이다. 게임 회사의 한 부서라 가장하여 사업을 제안한다.

1. 기획안의 제목에는 사업에 관한 마음에 와 닿고, 명확하고, 흥미로운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자사의 소개를 해야 하며 선택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총이익 등)
3. 시장의 내/외부 환경 분석과 SWOT분석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4. 선택한 사업이 매력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요즘의 트렌드라는 것을 증명할 기사나 시각 자료를 첨부하며 가능하다면 인터뷰도 시행한다.
5. 대형 게임회사의 온라인 게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타겟층을 정하고 게임 런칭과 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 멘티 팀의 경우 SNS와 체험단 모집을 사용.
6. 기대되는 단/장기적 효과를 고려한다.
7. 들어올 질문을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고려한다.

위의 제안을 염두에 두어 아이디어 내용 정리 후 PPT 구성을 하기로 했으며 멘토링 시간 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기로 했다. 내용과는 무관하나, 멘티 팀은 발표 시작 멘트를 ‘다들 어릴 적 한번쯤은 게임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 보시지 않았나요?’로 정했는데, 이 말이 참 인상 깊었고 아이디어에 적절한 대사로 생각했다.

융합과학대 우수 멘토링 팀

[청출어람(靑出於藍)] (소감)

멘토링 첫 모임이 생각난다. 멘티들이 생각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서 굳이 내가 없어도 무엇이든 잘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내가 한 학기 동안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뭘 도와줘야 할지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멘티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충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고, 다행히 내가 자신 있게 멘토링할 수 있는 분야들과 멘티들의 부족한 부분이 일치했다. 우리 팀에는 통학을 하는 친구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도 있어 시간 조율이 힘들었으며 학년도 달랐기 때문에 마땅한 멘토링 시간을 잡는 것이 어려웠다. 원래는 6회 정도를 예상했으나 중간에 학과 행사와 입학처 근로 등 상황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4번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멘토링을 할 수 없어 아쉬웠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어도 최고의 효율을 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팀이 바로 우리 팀이라고 자부한다. 항상 최고보다 최선을 염두에 두고 노력한 것과 서로 열정적이었던 것이 멘티들 성장의 가장 좋은 원천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첫 모임 때 멘티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물어봤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멘토링을 했다.

멘토링 전 대비 향상된 실력	
김해찬 멘티	민경건 멘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감각적인 PPT 디자인 ● 수업시간 적극적인 태도 ● 적합한 마케팅 전략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아이디어 다방면 검토 ● 수업시간 더 적극적인 태도

표에 정리한 결과처럼 멘티들은 한 학기 동안 큰 성장을 도모했다. 마지막 멘토링 시간 때,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했으며 아이디어 제안과 검토에서의 체계적인 모습과 PPT 구상력은 이전에 비해 굉장히 좋아졌다. 매 순간을 진지하게 임하며 마지막 멘토링 시간까지 최대한 배워가려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기도 했다.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그보다 더 푸르다는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한 말이다. 아마 우리 팀을 위한 단어 같아서 소감문의 제목으로 정했다. 내가 멘티들의 어두운 하늘에 비춘 쪽빛이었다면, 어둠이 걷힌 멘티들의 하늘에서는 쪽빛보다 더 푸른빛을 내고 있었다. 좋은 멘토는 멘티가 뛰어난 실적을 내게 하는 멘토가 아니라 멘티가 포기하지 않게 끌어주고 열중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멘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멘티들은 내가 내민 손을 잡아주었다. 첫 멘토링 활동인데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멘토링 효과로 인한 성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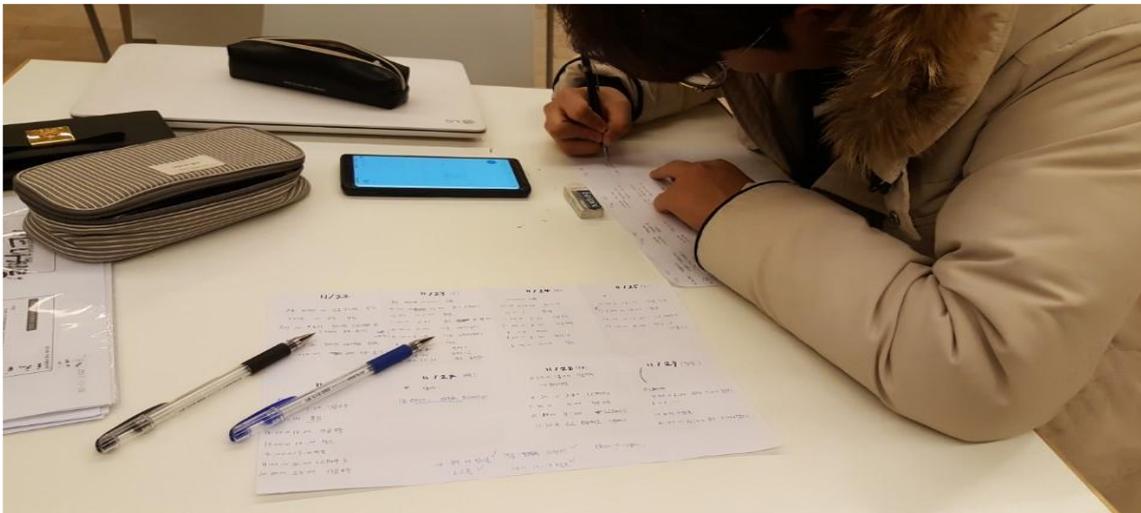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팀원 두 명은 큰 성적 상승효과를 볼 수 있었다.

팀원 1 : 2017 1학기 학과 최상위권 -> 2017 2학기 더 높은 학점, 학과 최상위권(순위 더 높음)

팀원 2 : 중상위권 -> 상위권으로 도약, 적극적인 팀원이었고 엄청난 노력으로 가장 큰 발전 도모

팀원 3 : 미미한 성적 상승이라 멘토링 효과로 보긴 애매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학습법에서 노하우를 터득하여 추후에는 꾸준히 성적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활동사진



| 융합과학대 우수 멘토링 팀 |



2017학년도 2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사례
- 생명과학대

생명과학대 참가자명단 -2017학년도 2학기

학과	멘토명	멘티명
의생명과학과	윤영빈	권민정
	이서영	조윤주
	류지연	차승규
	김정훈	홍지현
	류혜연	곽채숙
	진혜영	송석중
식품생명공학과	전소현	김정호, 조소현
	김수경	손은혜, 김윤희
바이오공학과	이용현	박상수
	정인혁	조인희
	이은주	서민숙
	강주빈	이예지
	류원선	장정화
	조윤희	권기흥

III. 생명과학대

투게더 - 의생명과학과

1. 멘토링 개요

- 1) 활동 미션: 학습 및 진로 상담
- 2) 멘토 및 멘티
 - (1)멘토 : 진혜영
 - (2)멘티 : 송석중
- 3) 멘토링 활동
 - (1)활동 횟수: 총 5회
 -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10.10	12:00-13:00	설운체육공원	함께 점심을 하다가 앞으로의 멘토링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
10.25	12:30-13:20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실습실 미래관 강의실	학습지원센터에서 주최한 멘토-멘티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멘토링 활동 역량 강화
11.07	18:30-21:20	송우리 돈앤카우	송우리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눔 수강신청과 관련한 조언과 학과생활과 진로고민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짐
11.28	18:30-21:20	학생회관	한 학기 동안 보낸 학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학업 및 진로관련 고민을 나누고, 기말 고사에 대한 조언을 해줌
11.30	17:30-20:30	학생회관	기말고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들에 대해 답해주고, 방학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2. 멘토링 소감

진혜영 멘토

17 후배분들과 교류가 적었던 편이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17 후배분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고, 멘토링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멘티분들에게 선배로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알려주고 도움 줄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습지원센터에서 주최한 멘토와 멘티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참석했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멘토링 활동에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다양한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특히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님이 너무 유쾌하셔서 학과 동기들과 같이 그 강의를 들으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은 멘티분들과 학교가 아닌 밖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어색했던 분위기를 풀고, 더 친밀해지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멘티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도움이 되기도 했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후배들이 학업이나 진로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내가 고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비록 그런 고민들을 들어주는 입장이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같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면서 내가 미흡한 부분에서는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아쉽기도 했고, 또 상담을 통해서도 오히려 내가 도움을 얻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았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후배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석중 멘티

처음 멘토링을 시작할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지 선배들과 얘기 나누어 보니, 한 학기 동안 1학년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들을 많이 여쭙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멘토 선배의 추천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선배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점차 편해지면서 학과 내 이야기나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선배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연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선배들과 친해지고, 또 궁금한 것을 편하게 물어볼 분들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3. 활동사진



대외활동을 향한 꿈 - 바이오공학과

1. 멘토링 개요

1) 활동 미션: 대외 활동

2) 멘토 및 멘티

(1)멘토 : 이용현

(2)멘티 : 박상수

3) 멘토링 활동

(1)활동 횟수: 총 6회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10.31	16:30-16:50	교내 카페	첫 인사 및 일정 계획 (대외활동의 신청 & 선택)
11.02	12:00-13:30	교내 카페	대외활동은 훗날 사회로 나갈 때 무기가 될 수 있는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차분히, 천천히, 여유 부리 지 말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1월 02일 진행한 멘토링 활동에서는 먼저 자신 의 꿈이 무엇이고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09	12:00-13:30	교내카페	저번 시간에 생각해본 자신의 꿈(좋아하는 것)에 따라 좀 더 대외활동의 폭을 좁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대외활동 을 간접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 하나의 간접적인 경험 또한 나중에 실제로 정 할 대외활동에서도 좋은 밑바탕이 되어주기에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11.16	12:00-13:30	교내카페	<p>11.09일의 멘토링 활동시간에서는 오직 직무(자신의 꿈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멘토링만을 찾아봤다면 이번 11월16일에서는 자신의 꿈과는 거리가 있더라도 사람을 만나 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대외활동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이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행동하는 것이 또한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꿈과 관련이 없는 대외활동이라도 이것을 '경험'이란 것으로 치환해 녹여내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고를 때에는 자신의 꿈 혹은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대외활동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p>
11.23	12:00-13:30	교내카페	<p>11월9일과 11월16일의 저런 큰 틀을 잡아놓고 실제로 지금 시기에는 어떠한 대외활동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방학기간이 아니고 새로 대외활동을 모집하는 기간이 아니기에 자신의 꿈과 관련된 대외활동의 수는 거의 없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봉사활동을 하는 대외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방학 이후에 추후 대외활동이 모집기간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p>
11.30	12:00-13:30	교내카페	<p>대외활동을 정하는 법 혹은 자신의 꿈에 맞는 대외활동을 찾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설정을 해보고 기말고사기간이 끝난 후의 목표에 대해 설정을 해봤습니다. 방학이라고 쉬는 기간이 아닌 하루 하루 발전할 수 있는 방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외활동 및 토익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신의 여유를 지키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기에 여행을 떠날 것을 추천해주며 이번 한 학기의 멘토링을 끝마쳤습니다.</p>

2. 멘토링 소감

이용현 멘토

처음에는 멘토와 멘티의 만남이 날짜가 지연이 된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멘토가 되어 하고자 싶어 했던 활동은 대외 활동이었기에 이것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신청시기는 주로 학기초부터 대략 한 달정도이며 좀 더 큰 것은 미리 방학부터 신청을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멘토 멘티 설정이 10월부로 이루어져 대외활동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그저 곁핥기 식으로만 진행이 된 것에 대해 멘티에게 가장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도 잘 따라와 준 멘티가 고마웠고 저 또한 최대한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있었기에 단순한 멘토-멘티의 상하관계라고 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따라와줄 수 있기에 이번 멘토링은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어쩌면 다른 소중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대외활동이란 주제로 멘토링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항상 만나던 사람들과 만나면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삶을 나아가고 더 발전시키려면 여러 활동을 해가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만나며 공유하는 것 또한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외활동은 또 다른 삶의 경험 즉,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취직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저 학교에서의 삶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닌 다른 직무와 연관된 활동을 해보는 것 또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대외활동'이라는 것에 대해 멘토링 주제를 설정하였으며 다음번에 이런 멘토링의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외활동이란 주제로 다시 설정을 할 것입니다.

학업은 당연한 우선순위이지만 대외활동 또한 단순히 스펙 쌓기가 아닌 학업과 동등한 경쟁선상에서 밀리지 않는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특성상 대외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저는 저와 관련된 사람들 더 넓게 말해 저희 학교 학생들도 하나씩은 대외활동을 해서 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멘티가 한 이번 멘토링의 주제는 기존의 다른 멘토링 보다 다소 생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 또한 될 수 있지만 저는 단점을 최대한 없애고 장점만을 살린 멘토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소한 주제이지만 대학생신분으로밖에 하지 못하는 대외활동을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두 번째는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대외활동은 특성상 친구와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혼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는 마치 새 학기의 느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저하면 대외활동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밖에 안 느껴지기에 사람들과 먼저 대화를 하는 것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제 멘토링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박전조 - 식품생명공학과

1. 멘토링 개요

- 1) 활동 미션: 대외활동
- 2) 멘토 및 멘티
 - (1)멘토 : 전소현
 - (2)멘티 : 김정호, 박현배, 조소현
- 3) 멘토링 활동
 - (1)활동 횟수: 총 4회
 -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09.26	점심시간	카페엔젤	멘티들이 원하는 멘토링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함
11.03	12:00-20:00	양재at센터 강남역식당	2017 계란페스티벌, 제 6회 강원푸드 박람회, 대학생 식품산업 논문경진대회 발표회에 참석
11.29	12:00-13:30	학생회관 및 카페엔젤	대외활동 찾기, 지원서 쓰는법, 면접 팁을 포함한 대외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눔
10.25	12:30-13:20	미술치료학과 실습실	학교에서 준비해준 피자를 먹으면서 논문을 찾고 읽어야 할 과제가 있어서 논문 찾는 법, 읽는 방법을 알려줌

2. 멘토링 소감

전소현 멘토

이번 학기 멘토링은 학생회후배들, 동아리 후배들과 매칭이 되어 서로가 편하게 의견을 내고 재미있게 활동을 했었다. 처음에 만나서 멘티 친구들이 원하는 멘토링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해서 함께 식품 전시회도 보러 가고, 논문경연대회에도 참석을 했다. 또한 우리 과 후배들에게 항상 대외활동을 추천을 해주고 싶었는데 멘티 친구들이 다행히 흥미가 있어서 다양한 대외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지원하는 법 등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 두 명의 멘티가 대외활동에 지원을 했고 한 명은 발표가 아직 안났고, 한 명은 1월초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들어서 매우 뿌듯했다.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나 또한 논문 경진 대회 같은 곳은 처음가보고, 식품 전시회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게 되었다. 또한 선후배간의 벽이 무너져 더욱 편한 사이가 되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선후배간의 관계를 얻게 되어서 좋았다.

